2026년 11월 12일

Hana FX Daily Letter

연준 매파 기조 부각에도 환율은 무거운 흐름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 강달러에도 위험선호 심리와 수급 요인에 하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30~1,340원

▪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월러 연준 이사의 빅스텝 발언 여파로 연준 긴축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달러는 크게 강세를 보였음. 하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호재에 뉴욕증시 기술주가 반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됨. 여기에 한국 수출 증가세에 따른 달러 공급 기대감과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 유입 가능성도 고려하면, 환율 하락세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3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전망

▪ **전일 동향 : 1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7.0원 내린 1,337.5원 마감**
장 초반, 예상 웃돈 미 CPI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한국 수출 호조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며 1,340원선을 하회. 이어 역외 매도세와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에 낙폭 확대해 1,333.6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따른 달러 수요와 연준 긴축 경계감에 1,330원대 후반으로 반등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연준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 여파와 더불어,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로 인해 달러 수요가 급증하자 달러인덱스는 큰 폭으로 상승해 103선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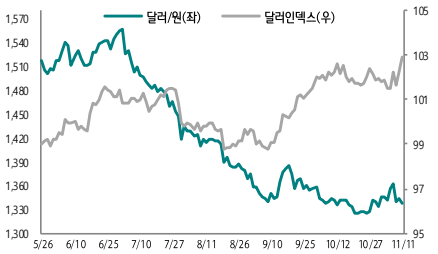
▪ **(유로-달러)** ECB의 12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은 유지되고 있으나,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대한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유로화 약세 흐름이 이어짐

▪ **(달러-엔)** AI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뉴욕증시에서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누그러진 영향으로 엔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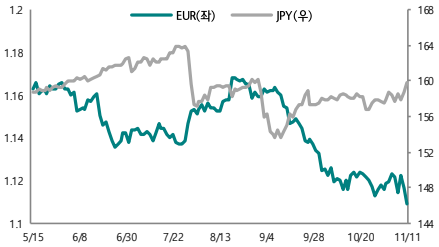
▪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가 한층 부각됨. 근원 CPI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모습임. 이에 연준 주요 인사들도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월러 이사는 50bp 인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해 시장의 주목을 받음.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양호한 고용 여건,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 등은 추가 긴축을 정당화하는 정책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다가오는 12월 FOMC에서의 빅스텝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25bp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임. 게다가 금리 인상 폭과 횟수 등 향후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상황임. 이러한 대외 환경은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는 원화 환율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경상수지 흑자와 달러 공급, 한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정책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43.5	1,343.5	1,331.4	1,336.4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090	159.80	6.6727
전일대비	-0.0074	+1.05	-0.0038
재정환율	1,483.14	836.90	200.43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6:00	영국 3분기 GDP성장률(YoY)	1.9%	1.4%
	영국 3분기 GDP성장률(QoQ)	0.7%	0.5%
22:30	미국 11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95k	189k
23:00	해멱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인사	주요 발언 내용
크리스토퍼 월러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이상 상승할 경우 50bp 인상도 고려
애나 폴슨	임금 압력이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
베스 해맥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2%로 낮추기 위해 정책을 제약적 수준으로 이동할 필요
로리 로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최소 25bp씩 두 차례 추가 인상 필요

자료: 언론 종합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